

研究論文

중세조선어의‘여격표시’에 대하여:
- 15·16세기를 중심으로 -

나카니시 교코(中西恭子)*

I. 서론	III. 자료 분석
II. 선행연구	IV. 결론

I. 서론

현대어의 ‘칠수는 영희에게 책을 주었다 와 같은 문장에서 ‘에게 는 그것에 선행하는 유정명사 ‘영희’가 ‘주다’의 영향을 받는 피행위자임을 나타내고, 보통 여격 조사라고 불린다. 중세어에도 ‘能히 一切 衆生에게 大乘法을 주건마른’, ‘문저 菩薩의 받즈브라’와 같이 현대어의 ‘에게 혹은 ‘께 에 해당되는 형태가 있다 ‘그에’, ‘게(께)’, ‘거과’, ‘과(쨌)’, ‘손닥’, ‘드려 ‘더브라 가 그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통사론적으로 반드시 ‘여격’을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또 이들 모두가 조사로서 굳어진 형태도 아니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안병희·이광호¹⁾에 따라 이러한 형태들을 ‘여격표시’라고 총칭하기로 한다.

‘여격표시’ 가운데 ‘그에’, ‘게(께)’, ‘거과’, ‘과(쨌)’는 (논자에 따라 세부적인 차이는 있으나) 대략 ‘(지정사+)장소명사+처격 조사’로 분석되어 왔다 적어도 ‘그에’, ‘게(께)’, ‘거과’에 관해서는 ‘그(지정사)+역(장소명사)2)+처격 조사’에서 유래

* 서울대학교 박사과정 수료, 국어국문학 전공.

1) 안병희·이광호, 『중세국어문법론』(학연사, 1990/1998), 178~186쪽.

한다는 점에서 의견 일치를 보고 있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이것들을 ‘처격 기원의 여격표시’라고 부르기로 한다.³⁾ ‘드려’와 ‘더브리’는 각각 동사 ‘드라’와 ‘더블’의 부사형이 여격과 비슷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므로 ‘동사 기원의 여격표시’라 할 수 있겠다. ‘손딕’에 관해서는 아직 그 기원이 밝혀진 바가 없다⁴⁾

이러한 ‘여격표시’는 종래 그 기원을 찾는 연구라든가 처격 조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의 일환으로서, 혹은 문법화라는 관점에서 개별적·단편적으로 논의되어 왔을 뿐, 이러한 형태 하나하나의 기능을 밝히고 그 전체상을 그리려고 한 논저는 거의 없었다. 본 연구는 ‘그에’, ‘계(계)’, ‘거과’, ‘과(과)’, ‘손딕’, ‘드려’, ‘더브리’ 각각의 기능적 특징을 통시적으로 관찰하고 그들이 어떻게 구별되어서 사용되어 왔는지 알아내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하여 본고에서는 15, 16세기 자료를 중심으로 각 형태의 출현환경을 조사하고, ‘여격표시’에 대한 종래의 기술을 검증하는 동시에, ‘여격표시’들 간의 관계와 기능적 차이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II. 선행연구

1. 문법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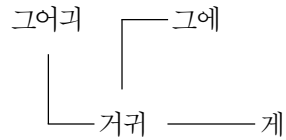
허웅⁵⁾에서는 ‘그에’, ‘거과’, ‘계’가 모두 ‘그어과’에서 파생된 것으로 보고 다음과 같이 도식했다. 또 이것들은 아직 굳어진 형태가 아니냐, ‘-씩’만은 이미 조사로서 확립되어 있다고 했다.

2) 현대어의 ‘터럭’, ‘터락’ 등에 보이는 접미사 ‘-역’의 기원으로 간주된다.

3) 박양규는 현대어 ‘에게’를 ‘-에게←-의+x에’와 같이 분석하고 ‘-의 x’를 일종의 무정화 절차로 보았다. ‘有情體言의 處格曲用이란, 그 體言에 場所性이나 空間性을 賦與하는 어떤 節次가 앞서지 않는 限, 統合上의 심각한 破格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박양규, 「所有와 所在」, 『국어학』 3(1975), 100~101 쪽

4) ‘손딕’에 관해서는 ① 슻(의존명사)+와 나 딕(장소를 나타내는 의존명사), ② 손 나 딕 ③ 손 딕 등의 가능성이 지적되어 왔으나 ①의 ‘오’, ②의 ‘소’, ③의 ‘손’이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밝혀진 바가 없다. ③의 ‘손’을 ‘手’로 보는 견해에는 성조가 맞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5) 허웅, 『우리 옛말본: 15세기 국어 형태론』(샘문화사, 1975/1995), 299 쪽.



안병희·이광호⁶⁾에서는 이것들을 모두 '여격표시'로 묶었고 '가장 일반적인 것은 속격 '이/의, 사'과 '그에/계'와의 결합형'이며, "'이/의'와의 결합형은 평칭, '사'과의 결합형은 존칭의 여격이 된다'고 했다

2. 논저

중세어의 '여격형' 전체를 대상으로 한 초기의 논문으로서는 김정차⁷⁾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여격형'과 '선행어소'의 '연결관계'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표 1> '여격형'과 '선행어소'의 '연결관계'

선행어소 \ 여격형	거귀	계	그에	귀	손+딛	드려	더브러
체언+이/의	○	○	○		○		
체언+사	○	○	○	○			
체언	○	○	○		○	○	○
동명사형	○	○					
체언+르						○	○
실사(實辭)	○	○	○			○	○
근원적 어사	그어귀				손+딛	드리다	더블다

6) 안병희·이광호, 앞의 책, 참조 '거귀'는 포함되어 있지 않는다

7) 김정차, 「여격형의 형성에 관한 고찰: 15C 국어를 중심으로」, 숭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1983), 195쪽.

『삼강행실도』에 문법 해설 및 일본어역을 단 시부⁸⁾에도 중세어의 ‘여격표사’에 대해 비교적 자세한 기술이 있다. 그 부분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거과’는 원래 지시어이며 ‘其處’의 뜻을 나타내는 ‘*각’에 처격어미 ‘의’가 통합하여 형성된 것이다. 보통 용언 그 중에서도 특히 형용사와 존재사의 관형사형 ‘ㄴ’, ‘ㄴ’과 더불어 나타나 ‘~ㄴ’은 상황에 있는 데서 라는 뜻으로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중세어에서 이 여격어미는 아직 완전히 어미화하지 않았고, 다른 여격어미에 비해 용례 수가 적다. 『三綱』에서도 1개 나타났을 뿐이다(엿데 혼 겨지빅거과 몬 行히리오).⁹⁾
2. ‘의/의+거과’는 거의 대부분의 예에서 원래의 뜻을 유지하고 있어서 완전한 여격이라 할 수는 없다.
3. ‘의/의+게, 사+게’, ‘의/의+거과, 사+거과’는 중세어에서는 용례수가 적다 가장 잘 쓰이는 것은 ‘의/의+그에, 사+그에’와 ‘사+과’이다.

『석보상절』을 서지학적·어학적으로 검증한 이호권¹⁰⁾에는 ‘존칭의 여격 조사’ ‘의’와 ‘-사그에’라는 작은 제목 아래 다음과 같은 기술이 보인다

1. ‘-사과’는 ‘선행체언’에 직접 붙는 데(‘아바^ㅅ과와 아즈마^ㅅ과와’(『釋詳』 6:1a)) 비해, ‘-사그에’에는 ‘부터와 증궤그에’(『月釋』13, 22b))와 같은 형태가 나타난다.
2. ‘-사그에’는 의미상 평칭의 여격어에도 쓰인다(‘王^ㅅ그엔’(『月釋』7:26a)).
3. ‘부터과’, ‘부터 거과’는 문헌에 나타나지만, *부터그에 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리고 ‘-사그에’는 ‘-사’과 ‘-그에’가 각각 제 기능을 맡고 있는 통사적 결합 형

8) 시부[志部昭平], 『諺解 三綱行實圖研究』(東京: 汲古書院, 1990), 1권 57~58쪽, 276쪽

9) 실제로는 이 용례 이외에도 3개가 나타난다

‘李氏 王室에 有功호물 사름마다 다 아느니 이제 느민거과 씨디면 後世에서 닐 알리오’(『三綱忠』 33).

‘그 각시 손소 브즈러니 석어미를 이바드며 쏘 남지너거과 머굼 것 보내더라’(『三綱烈』8).

‘남지니 忽然히 아히게 느려 張氏사 거과 주굼 제 말 니르고 썩 잇는 디를 궤러쳐늘’(『三綱烈』24).

10) 이호권, 『석보상절의 서지와 언어』(태학사, 2001), 120~123쪽, 140~151쪽

태인테 비해, ‘-스귀(썩)’는 이미 존칭의 여격 조사로서 문법화한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¹¹⁾

이 논문에서는 또 ‘-썩’ 앞에 나타나는 명사를 적극적 존대 인물과 소극적 존대 인물로 나누어 ‘-썩’의 출현이 주어와 ‘여격어’의 관계를 반영한 것인지 화자와 ‘여격어’의 관계를 반영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검토했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통해 우리는 ‘여격표시’의 출현환경이나 기능적 차이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가 있다. 그러나 김정차¹²⁾에서는 ‘여격형’과 ‘선행어소’의 통합 여부를 알 수 있을 뿐 그 빈도까지는 알 수가 없다. ‘가장 일반적인 것은 속격 ‘익’의 ‘스’과 ‘그에’계와의 결합형’이라고 한 안병희·이광호¹³⁾와, 가장 잘 쓰이는 것은 ‘익’의 ‘그에, 스+그에’와 ‘스+귀’이라고 한 시부¹⁴⁾의 기술 중 어느 쪽이 맞는지 확인해 볼 필요도 있다. 이호권¹⁵⁾은 방법론적으로도 시사하는 바가 많으나 대상 자료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결과만 가지고 해당 ‘여격표시’의 특징으로 삼기는 어려울 것 같다. 선행연구들의 기술을 확인·보충하기 위하여 다음 장에서는 15, 16세기 자료를 대상으로 선행요소 혹은 후행용언과의 통합관계, ‘행위자와 피행위자의 상하관계’, ‘격조사와의 관계’ 등을 조사·분석해 나가기로 한다.

III. 자료 분석

‘여격표시’ 하나하나의 기원까지 언급하는 것은 본고의 연구 범위를 넘는다. 그러나 자료 분석에 앞서 적어도 ‘처격 조사 기원의 여격표시’에 대해서는 각각의 기원적인 관련성을 확인해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먼저 ‘그에’가 ‘그어귀’에서 나왔다는 허웅¹⁶⁾의 주장은 ‘이어귀—이에’, ‘더어귀—더에’ 등 유사한 예가 존재하는

11) ‘스귀(썩)’는 『法華』 이후 ‘스계(썩)’로도 나타난다(‘부텃계<1:79>’)는 이 논문의 지적에 대해서는 ‘부텃계 因 심고물 머리 호디’(『月釋』15:12b) 등 몇 가지 반례가 있다. 단 ‘썩’에 관해서는 이 논문이 말하는 대로 『法華』에 나타난 것이 처음이다.

12) 김정차, 앞의 논문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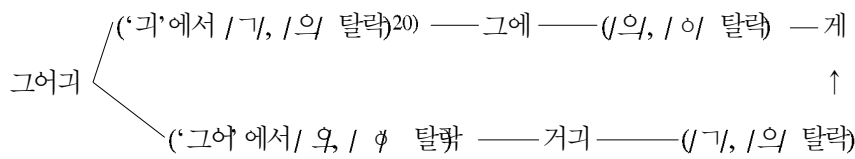
13) 안병희·이광호, 앞의 책, 참조

14) 시부, 앞의 책 참조

15) 이호권, 앞의 책, 참조

것으로 보아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 그러나 ‘개’는 직접적으로는 ‘거과가 아니라 ‘그에’의 축약형이 아닌가 싶다.

그 이유로는 ① ‘그에’는 그 전거로 보아 ‘개’와 ‘거과’보다 오래된 형태이다 17) ②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에’는 15세기 말 이후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는데, 일반적으로 말해 어떤 형태가 사라질 경우 그것을 대신하는 형태가 나타나거나 다른 형태로 흡수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거과’는 적으나마 17세기까지 그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 18) ③ 시부 19)에서도 ‘의/의+개’는 ‘의’와 ‘그에’에서 발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등을 들 수 있다. 즉 ‘그에’, ‘거과’, ‘개’의 기원적 관계는 일단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그에’와 ‘거과’의 관계는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그에’ 및 ‘개(새)’와 ‘과(씩)’ 사이에는 명백한 경계를 지을 수 있다. 그 이유로서는 ① 앞에서 본 이호권 21)의 검증결과, ② ‘그에, 개’, ‘거과’를 ‘애애 계통’, ‘과’를 ‘의 의 계통’이라고 한 남풍현 22)의 논의, ③ 뒤에서 보게 될 바와 같이 양자 간에는 출현환경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음, 등을 들 수 있다. 23)

16) 허웅, 앞의 책, 297~299쪽 참조
 17) ‘그에’의 전거는 『龍飛』, 『釋詳』, 『訓諺』, 『月釋』, 『內訓』에 한정되어 있다
 18) 예를 들면 『三綱』에 나타나는 ‘그에’는 『三綱東京』에서는 문장 표현이 완전히 바뀐 1 개를 제외하면 모두 ‘개’로 나타나는 데 비해, ‘거과’는 용례 4 개 중 1 개만 ‘개’로 바뀌고 3 개는 그대로 ‘거과’로 나타난다
 19) 시부, 앞의 책, 참조
 20) 박진호·황선엽·이승희, 「어말 ‘C+·/·-’에서의 ‘C+·/·-’ 탈락 현상에 대하여」, 『형태론』 3 권 2호(2001) 참조. 이 논문에서는 ‘저과→제’, ‘새바과→새배’, ‘그저께→그제’ 등에 근거하여 /그/ 탈락을 증명했다.
 21) 이호권 앞의 책, 참조
 22) 남풍현, 『國語史를 위한 口訣 研究』(태학사, 1999), 245쪽.
 23) 한용운에서는 ‘문헌자료에 근거하여 ‘스그에>스과>씩’라는 변이 과정을 겪은 것으로 상정된다’고 하는데, 문헌자료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서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한용운 『언어 단위 변화와

이상과 같은 판단을 바탕으로 ‘처격 기원의 여격표시’를 ‘그에’, ‘게’, ‘째’, ‘거기’, ‘기’, ‘씩’의 순서로 나열하기로 한다.

1. 선행요소

‘여격표시’ 앞에는 ‘∅’, ‘이/의’, ‘사’, ‘을/를’ 등을 수반한 명사 혹은 대명사(부정대명사도 포함됨)가 나타난다. 이것들을 일괄하여 ‘선행요소’라고 부르기로 한다.²⁴⁾ 명사와 대명사를 따로 설정한 것은 중세어의 대명사는 형태가 아니라 성조에 따라 주격과 속격이 구별되기 때문이다. 형태가 ‘대명사+∅’의 경우이라도 그 성조에 따라 ‘이/의’를 수반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²⁵⁾

또 ‘사게’와 ‘째’, 그리고 ‘사기’와 ‘씩’은 종래 대등한 가치를 지닌 것으로 간주되어 왔고, 다음과 같은 용례들도 그것을 뒷받침한다. (1ㄱ), (1ㄴ)은 ‘사게’와 ‘째’가, (1ㄷ)은 ‘사기’와 ‘씩’이 각각 대등한 가치를 지니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 (1) ㄱ. 無量 無邊 諸佛^사게 여러 가지 善根 심거(『法華』5:114b).
 ㄴ. 無量 無邊 諸佛^째 善根을 기피 심거(『法華』7:175a).
 ㄷ. 菩薩이 肴饈 飮食과 온가짓 湯藥으로 부터^기와 중의^게 布施하며...
 ㄹ. 값 업슨 오스로 부터^씩와 중의^게 布施하며(『改法』1:18b).

그러나 일반적으로 말해 형태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기능이 똑같은 경우는 극히 드물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사게’와 ‘째’, 그리고 ‘사기’와 ‘씩’을 일단 다른 형태로 보고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각 ‘여격표시’가 어떤 선행요소와 어느 정도의 빈도로 통합하는지 15세기 자료를 가지고 조사해 본 결과는 <표 2>와 같다

조사화』(한국문화사, 2003), 103 쪽

24) 엄밀하게 말하면 ‘이/의’와 ‘사’는 ‘여격표시’의 일부를 구성한다. 그러나 여기서는 기술의 편의상 ‘이/의’, ‘사’까지를 ‘선행요소’라고 부르기로 한다.

25) 김정차에서는 이 점을 고려하지 않는 채 모두 ‘체언’ 항목에 포함시켰다. 김정차, 앞의 논문 참조.

<표 2> 15세기 자료에 나타나는 ‘여격표시’와 선행요소의 통합관계

선행요소	여격표시	그에	계		거기	그		손덕	드려	더브러
			계	씨		그	의			
명사	∅	0	10 ²⁶⁾	36	6 ²⁷⁾	0	802	8	637 ²⁸⁾	25 ²⁹⁾
	이/의	88 ³⁰⁾	434 ³¹⁾	0	10	0	0	8	0	0
	스	132	43		12	57	0	333	0	0
	스(융합형) ³⁴⁾	4	17		2	379	0	0	0	0
	을/를	0	0	0	0	0	0	0	43 ⁵⁾	2 ³⁶⁾
대명사	∅	20	141	0	7	0	0	3	36	3
	이/의	1	0	0	0	0	0	0	0	0
	스	0	0		0	0		0	0	0
	스(융합형)	0	2		1	1		0	0	0
	을/를	0	0	0	0	0	0	0	26 ³⁷⁾	6 ³⁸⁾
합 계		114	645	36	38	437	802	22	702	36

- 26) ‘물’ 4개, ‘일회’ 2개, 그리고 ‘比丘尼’, ‘怨害鬼’, ‘나그네’, ‘각사’가 1개씩이다
 27) ‘물’ 3개, 그리고 ‘楊員外’, ‘새’, ‘아학’가 1개씩이다
 28) 이 중 3개는 명사가 ‘관형사형+이’인 경우이다.
 29) 이 중 1개는 명사가 ‘관형사형+이’인 경우이다.
 30) 이 중 23개는 명사가 ‘관형사형+이’(모두 ‘得度호리’)인 경우이다.
 31) 이 중 5개는 명사가 ‘관형사형+이’인 경우이다.
 32) ‘王스그헨 가리라’(『月釋』7:26a).
 33) 이 중 1개는 ‘스’이 아니라 ‘ㄱ’을 취한 예이다(阿闍世王스손덕 가니 王이 마초아 자노라 호야(『釋詳』24:6a)).
 34) ‘스’이 선행명사의 종성 자리에 나타나는 것. 선행명사가 한글로 표기되고, 또 그 종성이 ‘∅’, ‘ㄹ’, ‘ㄴ’인 경우이다
 35) ‘仙人이 그 각시를 드려 說法호더시니’(『月釋』4:65b).
 ‘아므레나 못둡흔 며느리를 어두리라 호야 婆羅門을 드려 닐오디’(『釋詳』6:13b).
 ‘아래 제 버디 주겨 하늘해 갯다가 느려와 須達일 드려 닐오디’(『釋詳』6:19b).
 ‘毗闍耶라 호리를 드려 닐오디’(『釋詳』24:8a)
 36) 이 중 1개는 명사가 ‘관형사형+야’인 경우이다
 37) ‘드려’ 앞에 오는 대명사는 ‘누’ 7개, ‘나’ 19개, ‘너’ 32개, ‘너희’ 4개이며 ‘누와’, ‘나는’ 모두 ‘을/를’을 수반한다

<표 2>에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알 수 있다.

1. '여격표사' 가운데 빈도수가 높은 것은 '익'의 ㄱ, '사'의 ㅅ, '드려'이다.³⁹⁾
2. '대명사+익'의 용례는 '너희들히그에 부촉호노니'(『釋詳』20:2a)와 같이 복수 표지 '들'이 개입한 것이며 '대명사+사'의 용례 3개는 모두 '그딛'의 경우이다. 즉 성조에 의하여 속격을 나타내는 대명사 뒤에는 모두 'ㅇ'가 나타난다.
3. '그에', '계', '거기'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기본적으로는 선행명사와 직접 통합하지 않는다.
4. '그에'가 '사'와 통합하는 것은 아주 적은 예에 한정된다.⁴⁰⁾
5. '*스'에, '*씨'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 사실을 '그에', '거기'의 '사'와의 통합이 통사론적인 통합에 머무르고 있다는 방증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단 '그에'의 경우 용례 총수 120개 중 95%(114개)가 '여격표사'로 쓰여 있어서, 용례 총수 52개 중 73%(38개)가 '여격표사'로 쓰이는 '거기'의 경우와 비교해 보아도 그 문법화가 상당히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6. 『월인석보』 권20, 25가 발견되기 전의 논문⁴¹⁾에서는 누락 혹은 부정되어 있었던 '사+손'이 확인되었다.
7. '드려'는 발화동사와 결합함으로써 '여격표사'로서 기능한다.⁴²⁾ 그러나 '드려'의 용례 총수 833개 중 84%(702개)가 '여격표사'로 쓰여 있어서 이 시기에 이미 '드려'의 문법화가 상당히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38) '더브러' 앞에 오는 대명사는 '누' 5개, '나' 2개, '너' 1개, '그딛' 1개이며 '누' 4개와 '나' 모두가 '을'을 수반한다.

39) 이 결과는 시부의 지적 3과는 다르다. 단 이 논문에서는 각 형태를 열거한 다음에 그것에 단 번호를 가지고 설명을 펼치고 있어서 번호를 잘못 쓴 오자일 가능성도 있다. 시부, 앞의 책, 참조.

40) 용례 5개 중 4개까지가 '부터와 좃갓그에 布施'이다.

41) 『월인석보』 권20과 권25가 발견된 것은 각각 2001년, 1995년이다. 따라서 김정차에서는 '사손'이 누락되어 있고, 박양규와 홍윤표에서는 각각 '존칭체안'은 '무정체안'과 동일하게 다루어지므로 '손(手)'과 어울리지 않는다. 장소를 나타내는 'ㅁ'의 처격형 '딛'을 가진 '손'은 원래 경어법과는 무관하다 등을 '사손'이 존재하지 않는 이유로 들고 있다. 김정차, 앞의 논문 참조; 박양규, 앞의 논문 참조; 홍윤표, 「助詞에 의한 敬語法 表示의 變遷」, 『국어학』 14(1985), 94-95 쪽.

42) 단 뒤에서 보게 될 바와 같이 드물지만 발화동사 이외의 동사와 통합하여 '드려'가 여격으로 기능하는 예도 발견된다.

같은 식으로 16세기 자료를 조사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 16세기 자료에 나타나는 ‘여격표시’와 선행요소의 통합관계

선행요소	여격표시	그에	계		거과	과		손터	드려	더브러
			계	썸		과	썸			
			명사	∅		0	21			
	익/의	0	451 ⁴³⁾	0	5	2	0	37	0	0
	ㅅ	0	0	0	0	2	17	0	0	0
	ㅅ(융합형)	0	0	144)	0	8	24	0	0	0
	을/를	0	0	0	0	0	0	0	0	0
대명사	∅	0	91	0	5	0	0	4	21	3
	익/의	0	0	0	0	0	0	0	0	0
	ㅅ	0	0	/	0	0	/	0	0	0
	ㅅ(융합형)	0	145)	/	0	0	/	0	0	0
	을/를	0	0	0	0	0	0	0	17	0
합 계		0	564	1	12	19	292	61	226	13

<표 2>와 <표 3>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은 것들을 알게 된다

1. ‘그에’는 16세기 이후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2. ‘거과’의 출현 빈도수가 15세기에 비해 낮아졌다.⁴⁶⁾
3. ‘ㅅ+계’는 16세기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⁴⁷⁾ ‘썸’가 1개 보일 뿐이다
4. 융합형의 경우도 포함해 ‘ㅅ+과’의 숫자가 15세기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다
5. 16세기에는 ‘썸’가 ‘ㅅ’과 통합한 예가 41개나 나타났다.

43) 이 중 3개는 명사가 ‘관형사형’이 인 경우이다

44) ‘천회 량삿썸 나아간대(『三綱東京烈』22a).

45) ‘그딛게 부축호야(『二倫玉山』14a).

46) 이것은 16세기에는 용례 수 자체가 적기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겠으나 17세기에도 14개 밖에 나타나지 않고(1개를 제외하고 모두 “두시언해 중간본”), 18세기에는 오직 1개가 나타날 뿐이다

47) 17세기에는 ‘ㅅ+계’가 1개, ‘썸’가 6개 나타난다

- . D=‘받다 류 철수가 영희에게 책을 받았다. (향수동사)
- ㅈ. D=‘당하다 류 철수가 영희에게 맞았다. (수용동사)
- ㅊ. D=‘잡히다 류 철수가 영희에게 잡혔다. (피동동사)
- 3. A가 B에게 D.
- ㄱ. D=‘가다 류 철수가 영희에게 갔다. (이동동사)
- ㅌ. D=‘미치다 류 영향이 철수에게 미쳤다. (도달동사)
- 4. A가 B에게 E가 되다 실패가 철수에게는 약이 되었다. (변성동사)
- 5. A가 B에게 ~하다. 철수에게는 아깝다. (형용사)
- 6. A가 B에게 있다 승상은 철수에게 있다. (존재사)
- 7. A가 B에게 ~이다. 철수에게는 비극이다. (지정사)

1은 A에서 B로 C가 이동하거나 B가 A에게서 어떤 영향을 받는 경우이며 2는 반대로 B에서 A로 C가 이동하거나 A가 B에게서 어떤 영향을 받는 경우이다. 그 영향이 A에게 이로울 경우에는 2-○, 해로울 경우에는 2-ㅈ이 된다. 2-ㅊ은 피동 접미사를 수반하는 경우이다. 3은 A 자체가 B로 이동하는 경우, 4는 B에게 A가 E로 변하는 경우, 5, 6, 7은 각각 용언이 형용사, 존재사, 지정사인 경우이다. 자동사와 타동사가 같은 형태인 ‘미치다’는 1, 3 모두에 해당된다. 그런데 중세어에서는 이 이외의 구문에서도 ‘여격표사’가 나타난다.

- (2) ㄱ. 勝^훈 德이 사르미게 너므신 전치라(『圓覺』상1-2:71a).
- 나. 佳士^익게 가즐비노니 예 미치 와 너가는 비를 慰勞^호노라(『杜詩』19:34a).
- 다. 寶華^로 부텃기 빋스와 供養^호습고(『法華』4:129b).
- 르. 왕^씩 뵈스와야 헝리라 헝야늘(『三綱東京忠』3a).
- 미. 님금씩 뵈셔 밥 머글 제(『鬪小』3:6a-b).
- 비. 헝더기 神明^씩 어기면 하늘히 罰^호시고(『內訓』2:10b).

(2 ㄱ), (2 나)의 후행용언은 ‘선행명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주어가 ~다’라는 뜻을 나타낸다. 이와 같이 주어의 선행명사에 대비시켜서 그 결과를 나타내는 동사를 ‘대비동사’라고 일컫는다. 또 (2 르)~(2 비)의 후행용언은 선행명사를 대상으로 어떠

한 행위를 행하는 동사들인데, 이들은 현대어로 번역하면 ‘을’과 통합하는 것들이다. 이러한 동사를 ‘대처동사’라고 부르기로 한다. 결국 ‘여격표시’의 후행용언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후행용언의 분류 항목>

- 수여동사 : 布施^ㄴ-, 供養^ㄴ-, 붙-, 심^ㄴ-, 밋 등
- 제시동사 : 봐 49), 現^ㄴ 등
- 발화동사 : 니라-, 畚-, 문-, 傳^ㄴ 등
- 청원동사 : 請^ㄴ-, 求^ㄴ 등
- 심리동사 : 사랑^ㄴ-, 嗔心^ㄴ 등
- 도달동사 : 미차
- 사동동사 : 어즈리-, 메이-, 히- 등
- 향수동사 : 든-, 뵈호-, 得^ㄴ-, (願을) 일우-, (梵行을) 닷^ㄴ 등
- 수용동사 : 맞-, 辱^ㄴ-, 죽 등
- 피동동사 : 불이-, 빨이-, 미야-, 쫓차-, 브리야- 등
- 이동동사 : 가-, 오-, 니를-, 몬 등
- 변성동사 : 드와
- 대비동사 : 남-, 곤^ㄴ-, 가줄바-, 꿍 등
- 대처동사 : 봐 50), 되시-, 圍繞^ㄴ-, 거슬뜨 등
- 여타 동사 : ㅎ-, 아니^ㄴ-, 말-, 어울-, 타나-, 나-, ∅ 등⁵¹⁾
- 형용사 : 말-, 다르-, 順^ㄴ-, 平等^ㄴ-, 親^ㄴ-, 갓갑 등
- 존재사 : 잇-, 없-
- 지정사 : 아

이러한 분류항목에 따라 15, 16세기 자료의 후행용언을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

49) 현대어의 ‘보아’에 해당됨

50) 현대어의 ‘뵈’에 해당됨

51) ‘ㅎ-’, ‘아니^ㄴ-’ 등은 일반적으로는 빈도수가 높은 동사이지만, ‘여격표시’ 뒤에서는 빈도수가 낮았기 때문에 ‘여타 동사’로 분류했다

52) ‘嗔心 말-’(『月釋』23:81a).

<표 4> 15세기 자료에 나타나는 ‘여격표시’와 후행용언의 통합관계

후행용언	여격표시	그에	계		거기	그		손뒤	뒤려	더브러
			계	쎄		그	의			
동 사	수여동사	28	198	9	7	56	151	2	0	0
	제시동사	30	25	2	0	23	36	0	0	1
	발화동사	12	74	6	8	232	365	5	699	35
	청원동사	3	17	1	1	28	28	1	1	0
	심리동사	3	5	0	2	1	2	0	152)	0
	도달동사	1	16	0	0	1	0	0	0	0
	사동동사	2	10	0	1	6	3	0	0	0
	향수동사	4	22	5	5	12	34	6	0	0
	수용동사	3	9	0	3	0	0	0	0	0
	피동동사	2	15	0	0	0	1	2	0	0
	이동동사	16	71	7	1	51	111	6	0	0
	변성동사	1	9	0	0	1	1	0	0	0
	대비동사	1	28	2	3	4	9	0	0	0
	대처동사	0	10	1	0	6	14	0	0	0
	여타	5	44	2	3	8	37	0	153)	0
형용사	1	38	0	2	4	7	0	0	0	
존재사	2	51	1	1	4	0	0	0	0	
지정사	0	3	0	1	0	3	0	0	0	
합 계	114	645	36	38	437	802	22	702	36	

53) ‘(無相頌을) 짓-’(『六祖上』116b-1).

<표 5> 16세기 자료에 나타나는 ‘여격표시’와 후행용언의 통합관계

후행용언	여격표시	그에	계		거기	그		손터	드려	더브러
			계	쎄		그	의			
동 사	수여동사	0	99	0	4	3	41	6	1	0
	제시동사	0	6	0	0	0	5	0	1 ⁵⁴⁾	0
	발화동사	0	67	0	0	3	122	28	216	13
	청원동사	0	21	0	0	3	12	0	4	0
	심리동사	0	8	0	0	0	1	0	2	0
	도달동사	0	22	0	0	1	2	0	0	0
	사동동사	0	20	0	1	1	1	0	0	0
	향수동사	0	35	0	0	0	23	5	1	0
	수용동사	0	17	0	0	0	0	1	0	0
	피동동사	0	47	0	0	1	1	2	0	0
	이동동사	0	59	1	1	1	17	8	0	0
	변성동사	0	4	0	0	0	0	0	0	0
	대비동사	0	27	0	1	2	2	0	0	0
	대처동사	0	18	0	0	2	34	0	0	0
여타	0	51	0	3	0	19 ⁵⁵⁾	11 ⁵⁶⁾	1	0	
형용사	0	20	0	0	2	8	0	0	0	
존재사	0	37	0	1	0	4	0	0	0	
지정사	0	6	0	1	0	0	0	0	0	
합 계	0	564	1	12	19	292	61	226	13	

<표 4>, <표 5>에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알게 된다

1. ‘계’는 15세기, 16세기에 모두 수여동사와 가장 잘 통합하여 2위가 발화동

54) 『알퐁 스식글 아니훤』(『順天』41:2).

55) 이 중 3개는 편지 수신자의 이름 뒤에 나타난 것이며 후행용언은 ‘∅’이다.

56) 모두 편지 수신자의 이름 뒤에 나타난 것이며 후행용언은 ‘∅’이다.

사, 3위가 이동동사인 데 비해, ‘과’, ‘작’은 15세기에는 둘 모두 발화동사 수여동사, 이동동사의 순서이며, 16세기에는 ‘과’는 거의 나타나지 않으며 ‘작’은 3위가 대치동사로 바뀐다

2. ‘계’에서 수여동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31%(15세기)에서 18%(16세기)로 크게 줄어든데 비해 ‘작’에서 발화동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46%(15세기)와 42%(16세기)로 큰 차이가 없다
3. ‘계’는 가장 다양한 용언과 통합하는데 특히 형용사, 존재사 등 동사 이외의 용언들과 통합한 예가 다른 ‘여격표시’에 비해 많다. 피동동사와의 통합도 16세기에 들어 크게 증가했다.
4. 15세기에는 이렇다 할 특징을 보이지 않았던 ‘손타’가 16세기에는 발화동사와 많이 통합하여 쓰이게 되었다.
5. ‘드러’와 ‘더브러’의 후행동사는 거의 모두가 발화동사이지만 약간의 예외도 보인다.

그런데 ‘여격표시’가 나타내는 의미가 후행용언의 종류와는 무관하게 통사론적으로 결정되는 경우도 있다. 다음 용례들의 후행용언은 모두 ‘∅’이다. 그런데 (3ㄱ), (3나)에서는 ‘여격표시’가 ‘비율의 기준(per)’을, (3ㄷ)에서는 ‘비교’의 뜻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된다.

- (3) ㄱ. 百千 사르민 그에사 하나 둘히 道果를 得호며(『釋詳』23:34a).
- 나. 無量 比丘의 그에사 하나 둘만 正受를 스랑호며(『釋詳』23:34b).
- ㄷ. 느리게 묻져 우디 말라(『杜詩』17:23b).

또 똑같은 후행용언을 취하면서도 ‘여격표시’가 다른 의미기능을 가지는 경우도 있다.

- (4) ㄱ. 世尊스기 느려와 몸에 放光호고 偈를 지서 讚歎호스븐니(『月千』64b).
- 나. 그러기 소사올아 바를에 도녀와 太子스기 느려 안쯔븐니(『月釋』22:17b).
- ㄷ. 김시의 남진니 물게 느려 디여 죽거늘(『三綱東京烈』35a).

르. 그 도즈기 즉재 혼 弓手를 살 혀 노하 쏘니 물게 느려 디니(『飜老』상 28b-30a).

(4ㄱ), (4ㄴ)의 ‘스과’는 현대어에서는 ‘께 에게’가 되고, (4ㄷ), (4ㄹ)의 ‘게는 ‘에(게)서’가 된다. 이것은 동사 ‘느라’가 자동사와 타동사의 뜻을 모두 가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이다. (4ㄷ), (4ㄹ)에서 볼 수 있는 ‘행위의 기점’을 나타내는 기능은 다른 ‘여격표시’에는 보이지 않으므로⁵⁷⁾ ‘게’의 특유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다.⁵⁸⁾

3. 행위자와 피행위자간의 상하관계

다음으로 행위자와 피행위자(선행명사)간의 상하관계를 알아보도록 한다. 단, 여기서 말하는 상위자/하위자란 반드시 고정적인 사회적 신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똑같은 인물끼리 장면에 따라 그 관계성이 달라질 수도 있다.⁵⁹⁾ 또 여기서 알고자 하는 것은 각 ‘여격표시’가 행위자와 피행위자의 관계성에 따라 어떻게 구별되어서 사용되는가 하는 것인 만큼 화자(필자)가 양자의 상하관계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그 판단이 뚜렷이 반영될 ‘-사’와 ‘-습’의 출현 여부에 주목하여 보도록 한다. 보통 존칭으로 간주되는 명사(王, 아버지, 어머니 등)라도 ‘스’이나 ‘-사’가 나타나 있지 않는 한 비존칭명사로 간주한다. 또 행위자나 피행위자가 일인칭/이인칭 대명사일 경우에는 ‘-사’나 ‘-습’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용례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일반적으로 상하관계는 다음과 같이 여섯 가지로 나누어진다.

57) ‘씩’의 용례에도 ‘聖人의 벼으므로 더 머러 믿티 아니흐리 잇건마련(『法華』:194a), ‘聖人의 병으므로 더욱 멀면 시혹 不信흐리 이실 전츠로(『金三』:26b)와 같이 행위의 기점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이는 예들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예는 둘 모두 ‘聖人까지의 거러 로 해석해야 마땅할 것이다.

58) 이 사실은 현대어 ‘께’에 ‘기점’을 나타내는 용법이 없는 것과 어떤 관련성이 있을지도 모른다. 선생님*께/*께서 편지를 받았다. 선생님께서 편지를 주셨다.

59) 예를 들면 ‘獄主 | 目連이드려 널오디 어마님과 오래 말 묻흐시리나(『月釋』:23:86b)’의 경우 目連이 獄主보다 신분이 높다는 것은 ‘묻흐시리나’만 보아도 명백하다. 그러나 이 장면에서는 목련의 운명이 獄主에게 달려 있어 獄主는 상위자(상대방을 지배 아래 두는 사람)가 된다.

<표 6> 15세기 ‘스+여격표시’와 ‘-시-’, ‘-습-’의 공기⁶²⁾

	스그에	스계	쎄	스거괴	스괴	의	손딤
-시-	0	7(12%)	8(22%)	1	20	79(10%)	0
-사-, -습-	0	6(10%)	4	0	86(20%)	91(11%)	0
-습-	0	18(30%)	9(25%)	2	359(82%)	461(57%)	0
용례총수	5	60	36	15	437	802	3

<표 6>에서 눈에 띄는 것은 ‘스괴’와 ‘-습-’의 높은 공기 비율이다. 15세기에는 하위자가 상위자에게 어떤 행위를 하는 경우 ‘스괴’가 압도적으로 많이 쓰인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스괴’는 ‘-시-’와의 공기 비율이 그다지 높지 않다. 이것은 ‘스괴’가 행위자가 하위자(비존칭명사)이고 피행위자가 상위자(존칭명사)인 경우, 즉 3-ㄴ의 경우에 많이 사용되는 ‘여격표시’이었던 것을 의미한다.

- (5) ㄱ. 目連이 부텨기 솔보되 世尊하 寶塔이 크면 功德이 엇더흐니잇고 『月釋』 23:77a).
 ㄴ. 그 쓰리 승掌하야 空中을 向하야 하늘기 솔보되 이 엇던 神靈스德이시 관되 내 시르를 누기시논고 『月釋』21:21b).

물론 ‘스괴’는 다음과 같이 존칭명사 사이에 쓰이는 것도 있다

- (6) 變化되샤물 彌勒이 疑心하샤 文殊스괴 무르시니 大法 니르실 들 文殊 |
 아라샤 『月釋』11:10b).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부텨’가 행위자 자리에 나타나는 일은 거의 없다⁶³⁾ 반면 피행위자 자리(선행명사)에 ‘부텨’가 나타나는 용례는 전체의 75%(329 개)를 차지하며, ‘世尊’ 15개, 如來 5개까지 포함시키면 그 비율이 80%(349 개)에 이른다.

62) 비율은 10% 이상일 경우에만 제시한다.
 63) 유일한 예외가 ‘부텨 菩薩스괴 법 맛디샤미 아비 아드리게 천량 맛뉘미 곧흐니라 『月釋』4:22a)이다. 이 용례는 부처에게서 법을 받은 菩薩들과 魔王의 대결을 그린 장면에 협주로 나타나는 것이다.

다. 즉 ‘사과’는 (그 문맥 안에서) 가장 높은 존칭에 붙는 ‘여격표사’라고 할 수 있다.

‘사과’에 버금가는 것이 ‘씩’인데, 그 용례에서는 행위자 자리에 존칭명사가 오는 경우, 즉 3-7의 비율이 약간 높아진다. ‘부텨’도 행위자로서 많이 등장한다.

(7) ㄱ. 王子의 무르샤티 내려오니 엇더 그리드록 시름흐야 흐는다(『月釋』22:27b).

나. 그씩 부텨 宿王華菩薩의 니르샤티(『月釋』18:24a).

ㄷ. 부텨 大王의 記호산 이를 法다비 修行호쇼셔(『月釋』25:83a).

이것은 ‘사과’에 비해 ‘씩’의 경우 그 선행명사에 부여되는 존경심이 낮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이유로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사과’가 ‘씩’로 축약됨으로써 더 낮은 존경심을 나타내게 되었다는 해석과, 원래 ‘사과’와 대등한 가치를 지니고 있던 ‘씩’이 하나의 형태소(조사)로서 기능함에 따라 그 분포가 넓어지고 그 결과 상대적으로 지위가 낮은 존칭명사에게까지 쓰이게 되었다는 해석이 그것이다.

한편 ‘사계’와 ‘췌’에는 피행위자에 대한 공손도, 행위자에 대한 존경도 그다지 높은 비율로 나타나지 않는다. ‘사과’, ‘씩’과 달리 ‘사계’, ‘췌’의 용례에서는 행위자와 피행위자의 상하관계에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 그 이유 중 하나이다.

(8) ㄱ. (王子들히)... 호마 千萬佛사계 여러 가짓 善미를 시므니라(『法華』1:99b).

나. 이 地藏菩薩摩訶薩은 諸菩薩사계 誓願이 深重호시니(『月釋』21:148b).

ㄷ. 이 藥王藥上菩薩이 이 근호 諸大功德을 일위 호마 無量 百千萬億 諸佛에 한 德本을 심거 不可思議 諸善功德을 일우니(『法華』7:151a).

그러나 다음과 같이 명백히 ‘비존칭명사→존칭명사’의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습’이 나타나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다.

- (9) (諸子) ... 아바니미 阿耨多羅三藐三菩提를 일으키다 듣좁고 다 보빅 버리
고 부텃게 가거늘 諸母 | 우리 조차 가 보내더니(『法華』3:96b).

그래서 이러한 용례들의 전거로 눈을 돌려 본 결과 ‘스게’와 ‘썸’의 용례는 그 대부분이 『法華』 혹은 “법화경”을 저본으로 한 자료에 나타난 것들이었다. 전자 60개 중 『法華』의 용례가 37개, 『月釋』 권5, 18 등, 『법화경』을 저본으로 한 문헌의 용례가 4개, 『改法』이 7개(합계 48개)이며, 후자는 36개 중 『法華』가 27개, 『改法』이 1개(합계 28개)이었다.⁶⁴⁾

또 그들을 원문과 대조해 본 결과 ‘스게’와 ‘썸’는 대부분⁶⁵⁾ 「於」혹은 「(於)...所」를 번역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⁶⁶⁾ ‘스게’의 용례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 (9') (諸子) ... 부텃게 가거늘

원문: 往詣佛所(커닐)

- (10) ㄱ. 鈍^헝 根이 小法을 즐겨 生死에 貪着^{헝야} 無量佛스게 기쁜 妙道를 行
티 아니^{헝야}(『法華』1:200a).

원문: 於諸無量佛(에)不行深妙道(헝야)

- ㄴ. 이 사름들히 헝마 十萬億 佛을 供養^{헝야} 諸佛스게 큰 願을 일으키니(『法華』4:72b).

원문: 於諸佛所(에)成就大願(헝니)

- ㄷ. 헝 모미 眷屬 업서 헝오사 이슴 즐기느니 다 와 부텃게 니르니(『法華』5:99a).

원문: 俱來至佛所(헝니)

각각 (10 ㄱ) ‘無量佛 밑에서’, (10 ㄴ) ‘諸佛이 계시는 데에서’, (10 ㄷ) ‘佛이 계시는 데에’와 같은 뜻으로 해석되며 처격적인 성격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스

64) 그것에 비해 ‘스기’는 『法華』, 『金剛』, 『圓覺』 등 불전 언해 이외에도 『三綱』, 『杜詩』 등에 고루 나타난다.

65) ‘스게’의 용례 48개의 내역은 「(於)…所」 30개 「於」 13개 ‘해당 한자 없음’ 5개이다. ‘썸’의 용례 28개의 내역은 「(於)…所」 20개, 「於」 3개, ‘해당 한자 없음’ 5개이다.

66) 이것은 ‘게’=「所」라는 뜻은 아니다. 실제로 ‘게’에 해당되는 「所」는 『法華』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계'와 '째'의 용례에 공손 표현이 적게 나타나는 또 하나의 이유라 할 수 있겠다.⁶⁷⁾

한편 (11)에 보는 바와 같이 '스귀'와 '씩'은 원문에 그것에 해당되는 한자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法華』에서는 81개 중 72개에 해당되는 한자가 보이지 않음).

(11) ㄱ. 舍利弗이 다시 부텃귀 슬오디 (『法華』1:166b).

원문: 舍利弗(이) 重白佛言(호스오디)

ㄴ. 이제 世尊의 받잡노니 오직 願호스오디 어엿비 너겨 바드쇼셔(『法華』3:109b).

원문: 今以奉世尊(호습노니) 惟願哀納受(호쇼셔)

단, 이동동사와 통합하여 '~이 계시는 데에'라는 뜻을 나타내는 '스귀' 7개,⁶⁸⁾ '씩' 2개는 원문에 「所」가 보이고, 반대로 발화동사와 통합한 '스개', '째'에 대해서는 원문에 해당되는 한자가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다(각주 65 참조). 이러한 예외가 일부 있기는 하나 다음과 같은 『月釋』 권18의 용례들을 보아도 원문에 여격을 표시하는 한자가 없을 때에는 '스귀(씩)'를 사용하고 「所」등이 있을 때에는 '스개, 째'를 대응시킨다는 것이 『법화경』을 언해했을 때 한 규범으로 작용했었던 것만은 틀림없다.⁶⁹⁾

(12) ㄱ. 妙音菩薩이 萬二千歲를 十萬 가지 伎樂으로 雲雷音王佛의 供養호습고(『月釋』18:83a).

원문: 妙音菩薩於萬二千歲以十萬種伎樂供養雲雷音王佛

ㄴ. 그 씩 雲雷音王佛스개 妙音菩薩이 伎樂으로 供養호며(『月釋』18:83b).

원문: 雲雷音王佛所妙音菩薩伎樂供養

67) 현대어를 가지고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다. 다음 보기에서 '선생님' 쪽에는 '물'의 여격을 구성하지 않기 때문에 통사론적으로는 반드시 '어쭙'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선생님께 여쭙다??물었다

선생님 쪽에 여쭙다/물었다

68) 6개가 '가'(원문 한자는 「至」), 1개가 '좃'(원문 한자는 「從」).

69) 이 자료의 권20에서는 (12ㄴ)의 원문 '雲雷音王佛所'에 '거기'를 대응시켰다.

‘스거과’는 『法華』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그 전거가 대부분 (저본이 “법화경” 이외의) 『釋詳』과 『月釋』이다.⁷⁰⁾ 용례 15개 중 절대적 존칭명사인 ‘如來’ 4개 ‘부터’ 2개, 기타 제불 6개가 선행명사 자리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습’은 2개 (‘如來’에 1개, 제불에 1개)가 나타났을 뿐이며, ‘-습’과의 공기 비율이 ‘스개’와 ‘쎄’보다 낮다. 이것은 ‘스거과’가 ‘스개’, ‘쎄’ 이상으로 처격적인 성격을 유지했었던 결과가 아닌가 생각되지만 용례수가 워낙 적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다.

‘스그에’는 ‘-습’과도, ‘-사’와도 공기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 역시 용례수가 적어서, 앞에서 언급했듯이(각주40 참조) 예외적인 형태로 생각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다음으로 선행요소로 ‘스’를 취하지 않는 ‘여격표시’(피행위자가 비존칭)의 용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이 경우 ‘-습’의 출현은 본래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⁷¹⁾ 뒤에 오는 용언이 ‘-사’를 수반하는지에 관해서만 살펴본다.

<표 7> 15세기 ‘(-스)여격표시’와 ‘-시-’의 공기

	그에	계	거과	과	손터	드려	더브러
-사	34(44%)	72(18%)	1	0	2	428(69%)	4(29%)
용례총수	77	406	11	0	13	622	14

행위자에 대한 존경심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것은 ‘드려’이다. ‘드려’는 1-ㄴ(존칭명사→비존칭명사)의 경우에 가장 잘 쓰이는 ‘여격표시’라 할 수 있다. 같은 ‘동사 기원의 여격표시’인 ‘더브러’의 경우 용례 총수가 적어서 확실하지는 않지만 행위자에 대한 존경을 나타내는 ‘-시’의 출현이 낮은 편이다. 이것은 행위자·피행위자 사이에 상하관계가 거의 없을 때, 다시 말하면 양자가 모두 비존칭

70) 그 이외의 전거는 ‘그딛 거과’(『杜詩』7:28a)와 ‘張氏스 거과 주ळ 제 말 니르고’(『三綱烈』24)의 2개뿐이다. 후자의 경우 『三綱東京』에서는 ‘당시거과’와 같이 ‘스’이 없는 형태로 바뀌어 있다.

71) 예외적으로 선행요소로 ‘스’를 취하지 않는 용례에 ‘-습’이 나타날 때가 있다. 15세기 자료에서는 다음 1개뿐이다.

‘五百釋女 | 王園比丘尼精舍에 가. 華色 比丘尼계 出家호야 슬보단’(『月釋』10:23a).

이 경우 ‘比丘尼’는 ‘스’를 수반할 만한 존칭명사가 아니면서도 ‘五百釋女’보다 상위자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습’이 사용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부터’나 ‘세중’ 등이 다른 사람에게 대하는 경우와 비교해 보면 행위자와 피행위자의 신분 차이가 적다고 하겠다.

명사인 2-ㄴ(비존칭명사→비존칭명사)의 경우에 잘 쓰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계’의 용례에서도 ‘-사’의 출현 빈도는 낮다. 즉 ‘계’ 또한 2-ㄴ에 해당되는 ‘여격표시’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더브러’와는 달리 ‘계’에는 ‘스계’라는 형태도 있어서 2-ㄱ(존칭명사→존칭명사)의 경우에 쓰이기도 한다. 그러나 ‘계’의 용례 전체에 차지하는 ‘스계’의 비율이 10%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계’는 본래 2-ㄴ의 경우에 많이 쓰이는 ‘여격표시’라 할 수 있겠다. ‘거과’에서는 더욱 ‘-사’의 출현 빈도가 낮아진다. ‘그에’는 ‘-사’의 출현 빈도가 두 번째로 높다. 1-ㄴ의 경우에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형태라고 하겠다. 16세기 자료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표 8> 16세기 ‘스여격표시’와 ‘-시-’, ‘-습-’의 공기

	스그에	스계	계	스거과	스과	씩	손딤
-사	0	0	0	0	0	16	0
-사, -습	0	0	0	0	0	3	0
-습	0	0	0	0	3(30%)	116(40%)	0
용례총수	0	1	1	0	10	292	0

16세기에는 존칭명사와 통합하는 ‘여격표시’가 거의 ‘씩’에 한정되었기 때문에 ‘-습’과의 공기와 관련하여도 통계상 의미가 있는 숫자는 ‘씩’의 40%뿐이다. 또 ‘-시’와 공기하는 ‘씩’의 용례는 16개에 불과하며, ‘씩’이 앞의 분류 항목 3-ㄴ(비존칭명사→존칭명사)의 경우에 비교적 많이 쓰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선행요소로 ‘스’를 취하지 않는 ‘여격표시’(피행위자가 비존칭)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16세기 문헌에서는 ‘스’와 통합하지 않는 ‘여격표시’의 뒤에 오는 용언이 ‘-사’

<표 9> 16세기 ‘(-스)여격표시’와 ‘-시-’의 공기

	그에	계	거과	과	손딤	드려	더브러
-시-	0	19	0	0	0	59(36%)	0
용례총수	0	428	5	8	15	165	9

를 수반하는 경우가 아주 드물다는 것을 알게 된다. ‘드려’에서도 ‘상위자→하위자’의 비율이 상당히 낮아진 것을 볼 수 있다. 종래 ‘드려’와 더불어 비존칭명사만을 선행명사로 취한다고 설명되어 온 ‘더브러’의 경우 ‘-사’와의 공기가 15세기에 상당히 낮았으나 16세기에 이르러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게 되었다. ‘드려’가 상위자인 행위자가 하위자인 피행위자를 자신의 지배 아래 두고 어떠한 행위(주로 발화행위)를 행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데 비해(각주 59 참조), ‘더브러’는 대등한 입장에서 같이 어떠한 행위(주로 발화행위)를 하는 경우에 많이 사용된다고 할 수 있겠다. 이것은 본고에서는 대상에서 제외된 ‘서르 더브러 널오닥(『六祖』상8a-3)와 같은 용례로부터도 추측이 가능하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행위자·피행위자의 상하관계와 ‘여격표시’>

		15세기	16세기 ⁷²⁾
1. 상위자→하위자	ㄱ. 존칭명사→존칭명사	(쎄)	_____
	ㄴ. 존칭명사→비존칭명사	드려	드려
2. 대등한 관계	ㄱ. 존칭명사→존칭명사	(쎄)	_____
	ㄴ. 비존칭명사→비존칭명사	게, 더브러	_____
3. 하위자→상위자	ㄱ. 존칭명사→존칭명사	(그)	_____
	ㄴ. 비존칭명사→존칭명사	그, 썸	썸

참고로 말하면 16세기 자료에는 ‘-사’를 취하지 않는 ‘여격표시’ 뒤에 ‘-습’을 수반한 용언이 나타나는 예가 11개나 보인다. 그 일부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 (13) ㄱ. 아버의 넷 번에 도히 너기느니를 힘식장 청흐야 오게 흐며 소닉게 받
 즈을 거슬힘 식장 피화(『飢小』7:3b).
 ㄴ. 니춤이 모다 안즌 알피 썸어 어피게 솔오닥(『二倫玉山』8a).
 ㄷ. 문져 사름 브러 존당의게 숭고 혹 눈 비 오거나 흐거든 존당이 문져
 사름 브러 알외야 오디 말에 흐라(『呂氏華山』19b).
 ㄹ. 얼운의게 피셔 술 먹을시 술이 나아오나든 니러(『小學』2:62a).

72) 16세기의 빈칸은 그것에 해당되는 용례가 없다는 뜻은 물론 아니다. 그 상하관계가 ‘스이나-시’, ‘-습’ 등과 같은 형태에 의하여 표현되어 있지 않을 뿐이다.

이것들은 모두 ‘여격표사’의 선행명사가 ‘스’를 요구할 만한 존칭명사가 아니면 서도 행위자보다 상위자라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 ‘-습’이 사용된 것으로 생각된다.

4. 격조사와의 관계

격조사 가운데 ‘여격표사’와 통합이 가능한 것은 ‘과와와’와 ‘로’ 뿐이다. 그런데 후자의 예는 다음 6개가 보일 뿐이다.

- (14) 가. 길흘 츠자 부텃기로 가는 저기(『釋詳』6:19a).
- 나. 摩耶의로 向하야 슬복사디(『釋詳』23:29a).
- 다. 如來의로 向하야 가거늘(『月釋』22:71b).
- 러. 키를 제게로 향하야 피화 다물디니라(『翻小』3:27a).
- 모. 舍利 소사 나시고 사르미게론 더러본 서근 내를 마리브며(『月釋』18:39b).
- 비. 法 甞 마르샤문 즈갓기론 三昧力을 나토샤 熏練하산 功을 퍼실씩(『月釋』18:39b).

그래서 여기서는 ‘과와와’와의 관계에 관해서만 살펴보기로 하겠는데, ‘과와와’의 통합관계뿐만 아니라 ‘(A와 B)+여격표사’와 같은 경우에 관해서도 검토하도록 한다. 용례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15세기 자료와 16세기 자료를 함께 다루고, 또 ‘이/의’, ‘스’ 등 선행요소의 유무에 관해서는 일단 고려 밖에 놓는다.

그예: ‘명사구+그예’ 9개(*그예와는 나타나지 않음).

- (15) 가. 부텃와 증광그예(『釋詳』13:22b 2개, 『釋詳』13:23a 2개).
- 나. 善男子아 내 佛法으로 너와 諸菩薩大弟子이그예 付屬호디(『釋詳』20:16a).
- 다. 부텃 우과 大衆들히그예 비호며⁷³⁾(『月釋』11:34a; 『月釋』11:85b; 『釋

73) 이러한 구문도 ‘그예’가 ‘장소+처격 조사’의 성격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佝 上 과 大衆’은 층위를 다르게 하고, ‘佝(의) 上 과 大衆(의) ○○(장소, 위치명사)’처럼 해석해야

詳』13:12b; 『釋詳』13:31b).

계: ‘명사구+계’ 22개(*과와+계는 나타나지 않음).

(16) ㄱ. 부텃 우과 쏘 모든 大衆의게 비흐며(『法華』1:56a; 『法華』1:104a; 『改法』1:8a).

ㄴ. 盂蘭盆을 지서 부텃과 중의게 施호야(『月釋』23:98a).

ㄷ. 네게과 네 오라비와는 몬 주로다코 시워리거늘(『順天』35:3).

(16ㄷ)에서는 명사2 뒤에 ‘여격표사’가 나타나 있지 않다.

깨: ‘명사구+깨’ 2개 (*과와+깨는 나타나지 않음)

(17) ㄱ. 내 世尊스 앞과 諸來 十方 佛께 이 곧흔 盟誓스 마를 發호습노니(『法華』4:201a).

ㄴ. 龍女 | 智積 菩薩와 尊者舍利佛께 닐오디(『法華』4:178b).

ㄷ. 八意 燈明께와 十六이 智勝께 곧호시니 이시니라(『法華』2:43b).

(17ㄷ)은 ‘[명사1이 명사2께]와 [명사3이 명사4께]’ 구문이며 이때의 ‘와’는 문장 2개를 접속하는 접속격조사이다

거기: ∅ (*과와+거기와 *거기와가 모두 나타나지 않음)

과: ‘기와’ 5개

(18) ㄱ. 부텃기와 중의게(『月釋』11:2b; 『改法』1:18b).

ㄴ. 아바넛기와 아즈마넛기와 아자바넛내의 다 안부호습고(『釋詳』6:1a).

ㄷ. 부텃기와 大菩薩와 辟支佛와 阿羅漢을 供養호야도(『月釋』18:46a).

ㄹ. 衆生의 두려이 崐근 性體 부텃기와 다르디 아니컨마룬(『圓覺』하 2-1:20b).

(18ㄷ)에서는 첫 번째 명사에만 ‘여격표사’가 나타나 있다 (18 ㄷ)의 ‘와’는 공

양자가 ‘뺨’의 사격(斜格)으로서 대등한 층위에 서게 되기 때문이다 용례(16 ㄱ), (17 ㄱ)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동격 조사⁷⁴⁾이며, 다른 예들과는 성격이 다르다.

예: ‘의와’ 6개, ‘명사구+와’ 12개

- (19) 가. 大極 大道元始天尊의와 衆仙百靈의 연접노니(『月釋』2:74a).
- 나. 王의와 比丘의와 받즈븨니라(『月釋』8:95a).
- 다. 彌勒 菩薩 摩訶薩와 諸大士의 니르샤디(『改法』1:22a).
- 르. 의안대군과 흥안군과 태조의 슬와시닐 태죄 니르샤디(『三綱東京忠』33a).

이 결과를 표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0> ‘과/와’ 및 명사구와의 통합·지배관계

	그에	게	께	거기	기	의
과/와+여격표시	○	×	×	×	×	×
여격표시+와	×	△	△	×	○	○
명사구를 지배함	○	○	○	×	×	○
공동격조사와 공기함	×	×	×	×	○	×

‘과/와+여격표시’라는 통합과 유사한 예는 다음과 같이 처격의 용례에서도 찾을 수 있다.

- (20) 相續을 브터 境界를 緣하야 念하야 꿈와 樂과에 住待하야 므스매 著을 니르왁는 전치라(『圓覺』상1-1:82a).

‘여격표시+와’에 관해서 말하면 (18 ㄱ)에서 ‘부텨 와’ ‘중 에게’ ‘여격표시’가 따로따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존경을 받는 정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

74) 비교격 조사로 분류하는 견해도 있으나 여기서는 이익섭·채완에 따라 ‘공동격 조사’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안병희·이광호에서도 이러한 ‘과/와’를 ‘비교격 조사’라는 명칭이 더 뜻에 부합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하면서도 크게 나누어 ‘공동격표시의 조사’에 포함시켰다 이익섭·채완 『국어문법론강의』(학연사, 1999/2002), 188~194쪽, 안병희·이광호, 앞의 책 참조.

된다. 또 (19ㄴ)의 경우 ‘[王과 比丘]의 반즈븍니라 처럼 선행명사를 하나의 명사구로 묶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것을 하나하나 ‘王의와’, ‘比丘의와’로 한 것은 각자에 대한 존경심을 명백히 나타내기 위해서이었던 것이다. ‘계’와 ‘깨’에 ‘△’을 단 이유는, 전자에 관해서는 방언의 영향이 큰 자료 『順天』에 나타난 (16ㄷ)이 그 유일한 용례이기 때문이고, 후자에 관해서는 (17ㄷ)에서 본 바와 같이 구문적인 영향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17ㄷ)과 같은 구문은 처격 조사의 용례에서도 찾을 수 있다.

(21) 孟子ㅣ 崑^으샤^디 口ㅣ 味에와 目ㅣ 色에와 耳ㅣ 聲에와 鼻ㅣ 臭에와 四肢ㅣ 安佚^흠에 性이나 命이 인는 디라(『孟子』14:15a).

명사구 지배에 관해서는 ‘거기’를 제외하면 오직 ‘과’만 그 용례를 찾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것은 통사론적인 특징이라기보다 ‘과’가 최고의 존칭명사에만 붙는 ‘여격표시’라는 점에 원인이 있을 것이다. 최고의 존칭명사만을 묶은 명사구란 성립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공동격 조사와의 공기가 ‘과’에서만 관찰되는 것도 아마 같은 이유 때문일 것이다. ‘~과와 같다/다르다’고 할 때 ‘여격표시’는 필수적이 아니다. 그러나 ‘부처와 다르지 않다’라는 문장에서는 부처에 대한 존경심을 나타낼 문법적 기제가 없다. 그래서 ‘과’를 삽입함으로써 그것을 표현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싶다.

IV. 결론

이상 보아 온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15세기에 가장 잘 쓰이던 ‘여격표시’는 ‘의/의 계’, ‘스과’, ‘씩’, ‘∅드려’이다. 다시 말하면 ‘계’는 ‘의/의’와 통합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데 비해, ‘과’는 15세기에는 예외 없이 ‘스’과 통합한 형태로 나타나고 명사에 직접 붙거나 ‘의/의’를 수반하는 일은 없다. 이 사실로부터 존칭명사에는 원칙적으로 ‘스과’ 혹은 ‘씩’이 통합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럼 적으나마 나타나는 ‘스계(께)’는 ‘스과’, ‘씩’와 어떻게 다른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그것을 알기 위하여 각 용례의 전거를 조사해 본 결과 ‘스게(쎬)’는 주로 『法華』 혹은 『법화경』을 저본으로 한 자료에 나타나, 『법화경』 원문의 「於…所」를 번역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스기’와 ‘씩’는 해당되는 한자가 원문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스게(쎬)’는 16세기에는 2개가 보일 뿐이다. 이러한 사실을 미루어 볼 때 현대어 ‘개’의 기원은 ‘쎬’가 아니라 ‘씩’임이 틀림없다.

‘개’와 ‘기’, ‘씩’의 차이는 후행용언에서도 드러난다. ‘개’는 15, 16 세기를 통해 수여동사, 발화동사, 이동동사의 순서로 통합하는 빈도수가 높고 형용사 존재사 등과도 폭 넓게 통합한다. 그것에 비해, ‘기’, ‘씩’는 15세기에는 모두 발화동사, 수여동사, 이동동사의 순서로 통합 빈도수가 높고, 이들 상위 3위까지가 후행용언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16세기에 ‘기’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씩’의 후행용언 빈도수는 3위가 대치동사로 바뀐다).

이와 같이 ‘기’와 ‘씩’는 적어도 15세기에는 아주 비슷한 출현환경을 보인다. 그러나 행위자와 피행위자의 상위관계에 관해서 알아본 결과 이 두 형태 사이에 미묘한 기능상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들은 선행명사(피행위자)로 존칭명사를 취한다는 공통점을 가지면서도, ‘스기’는 ‘씩’에 비해 하위자로부터 상위자에 대한 행위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고, 그 문장 안에서 최고의 존칭명사(특히 ‘부터’)와 함께 사용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 ‘씩’에는 이러한 제한이 없고, 행위자와 피행위자간의 차이가 ‘스기’의 경우에 비해 적다. ‘개’는 대등한 입장(대부분은 비존칭명사 사이)에서 행해지는 행위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스게’와 ‘쎬’는 워낙 용례수가 적기 때문에 기능상 차이가 있는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그에’와 ‘거기’는 용례 총수가 적어서 지금으로서는 다음의 세 가지 특징을 지적할 수 있을 뿐이다. ① 이들의 출현환경은 ‘개’와 유사하다 ② ‘그에’는 전거로 보아 가장 오래된 형태이며 하위자에 대한 상위자의 행위에 쓰이는 경우가 많다. ③ ‘거기’는 사실상 『釋詳』과 『月釋』에만 나타나는 것으로 ‘개’보다 오래된 형태일 가능성이 높고, 상위자에 대한 하위자의 행위에 사용되면서도 공손 표현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손닥’도 용례 총수가 적어서 이번과 같은 통계적 조사에서는 드러나는 특징이 많지 않다. ‘손닥’가 선행요소로 ‘∅’, ‘이’, ‘시’를 취하고 후행용언으로는 발화동사와 통합하는 빈도수가 약간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뿐이다. 앞으로 더 자

제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동사 기원의 여격표시’인 ‘드려 와’와 ‘더브러’는 15세기에는 둘 모두에 ‘올/탈’과의 통합이 나타나나, 16세기 들어 ‘드려’에서 ‘명사+올/탈’과의 통합이 소멸하며, ‘더브러’에서는 ‘대명사+올/탈’조차 보이지 않게 되었다. 단 ‘더브러’는 그 후 ‘로’와 많이 통합하게 됨으로써 ‘여격표시’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드려 와’와 ‘더브러’는 선행명사에 비존칭명사를 취한다는 공통점이 있으면서도, 전자는 상위자로부터 하위자에, 후자는 같은 입장에서 어떤 행위(주로 발화행위)가 행해지는 경우에 많이 쓰인다는 차이점이 있다.

격조사 ‘과/와’와의 통합에서도 ‘여격표시’는 각각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데 그 현상들은 경어법 표시의 문제와 크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까지의 논의를 다시 종합해 보면 ‘여격표시’ 서로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존칭명사에 붙는 ‘여격표시’로서는 ‘스기’와 ‘씩’이 거의 비슷한 기능을 지니고 있었는데, 가장 높은 존경심을 나타낼 필요가 있을 때에는 ‘스기’가 선호되었다. 그러나 ‘스기’는 점차 ‘하위자→(최고의)상위자’라는 제한이 없는 ‘씩’로 흡수되고 말았다. 비존칭명사에 붙는 ‘여격표시’로서는 원래 ‘그에’가 쓰이던 것으로 보이나, 15세기 이후에는 주로 (그의 축약형으로 보이는) ‘게’가 쓰이게 되었다. 그리고 ‘게’는 한때 ‘스게(께)’라는 형태로 존칭명사와의 통합까지 시도했으나 성공적이지 못했다. ‘그에’에서 ‘게’에 이르는 과도기에 있어서 (아마도 ‘그어과’에서 별도의 음운 변화를 겪은) ‘거기’라는 형태도 쓰였으나 이것도 ‘게’로 흡수되고 말았다.

이러한 ‘처격 기원의 여격표시’와 따로 동사의 부사형이 여격과 비슷한 기능을 가지게 된 형태로 ‘드려’와 ‘더브러’가 있었다. 이들은 비존칭명사만을 선행명사로 취했으나 비존칭명사에 붙는 형태로서 따로 ‘게’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과의 차별화 없이는 살아남기 어려웠을 것이다. 현대어 ‘더러’에 보이는 한정적인 기능은 여기서 비롯한 것이 아닌가 싶다. 이 부분 또한 앞으로 입증이 필요한 과제이다.

참고문헌

- 김영배, 『국어사자료연구』. 서울: 월인, 2000.
- 김영옥, 『문법형태의 역사적 연구: 변화의 이론과 실제』. 서울: 박이정, 1995.
- 김정차, 「여격형의 형성에 관한 고찰: 15c. 국어를 중심으로」. 송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3.
- 남풍현, 『國語史를 위한 口訣 研究』. 서울: 태학사, 1999.
- 박양규, 「所有와 所在」. 『국어학』 3, 1975.
- 박진호·황선엽·이승희, 「어말 ‘C+·/·-’에서의 ‘C+·/·-’ 탈락 현상에 대하여」. 『형태론』 3 권 2 호, 2001.
- 시부[志部昭平], 『諺解 三綱行實圖研究』(1). 東京: 汲古書院, 1990.
- 안병희, 「主體謙讓法の 接尾辭 ‘-습-’에 對하여」. 『진단학보』 22, 1961.
- _____, 「중세국어의 속격어미 -스에 대하여」. 『이승녕박사송수기념논총』 1968.
- 안병희·이광호, 『중세국어문법론』. 서울: 학연사, 1990/1998.
- 이광호, 「중세 국어의 ‘사이시옷’ 문제와 그 해석 방안」. 『안병희선생회갑기념논총』 서울: 문학과 지성사, 1993.
- 이승녕, 「중세국어 특이 처격 ‘-악, ‘-의’에 대하여」. 『학술원논문집』 19, 1980.
- 이익섭·채완, 『국어문법론강의』. 서울: 학연사, 1999/2002.
- 이현희, 『중세국어 구문연구』. 서울: 신구문화사, 1994.
- 이호권, 『석보상절의 서지와 언어』. 서울: 태학사, 2001.
- 조항범, 『순천김씨묘출토간찰』. 서울: 태학사, 1998.
- 한용운, 『언어 단위 변화와 조사화』. 서울: 한국문화사, 2003.
- 허 응, 『우리 옛말본—15세기 국어 형태론—』. 서울: 샘문화사, 1975/1995.
- 홍윤표, 「十五世紀 國語의 格 研究」. 『국어연구』 21, 1969.
- _____, 「助詞에 의한 敬語法 表示의 變遷」. 『국어학』 14, 1985.

<대상 자료>

* 약호는 본고에서 언급한 자료에만 달았다

● 15世紀	● 16世紀	
龍飛御天歌(『龍飛』) 月印千江之曲(『月千』) 釋譜詳節(『釋詳』) 訓民正音諺解(『訓諺』) 月印釋譜(『月釋』) 楞嚴經諺解 法華經諺解(『法華』) 禪宗永嘉集諺解 金剛經諺解(『金剛』) 阿彌陀經諺解 般若心經諺解 上院寺重創勸善文 圓覺經諺解(『圓覺』) 救急方諺解 牧牛子修心訣 蒙山法語諺解 內訓(『內訓』) 杜詩諺解(『杜詩』) 三綱行實圖(『三綱』) 南明集諺解 金剛經三家解(『金三』) 觀音經 救急簡易方 六祖壇經諺解(『六祖』) 眞言勸供 改刊法華經(『改法』)	統三綱行實圖 翻譯老乞大(『翻譯老』) 翻譯朴通事 蒙山法語(孤雲寺) 翻譯小學(『翻譯小』) 呂氏鄉約諺解(尊經閣) 二倫行實圖(『二倫玉山』) 正俗諺解 簡易辟瘟方 蒙山法語(深源寺) 訓蒙字會 蒙山法語(水鉢庵) 牛馬羊豬染疫病治療方 分門瘟疫易解方 救荒撮要 聖觀自在求修六字禪定 父母恩重經諺解 蒙山和尚六道普說 禪家龜鑑 七大萬法 呂氏鄉約諺解(一石) 光州千字文 新增類合 安樂國太子傳 百聯抄解 蒙山法語(松廣寺)	初發心者經文 警民編(重刊) 續三綱行實圖(重刊) 石峰千字文 小學諺解(『小學』) 周易諺解 大學諺解 論語諺解 孟子諺解(『孟子』) 中庸諺解 孝經諺解 宣祖國文教書 法集別行錄 三綱行實圖(東京)(『三綱東京』) 順天金氏墓出土簡札(『順天』) 長壽滅罪護諸童子陀羅尼經 呂氏鄉約諺解(華山)(『呂氏華山』) 武藝諸譜

● 투고일 : 2004. 11. 1

● 심사완료일 : 2004. 11. 23.

● 주제어(keyword) : 처격 기원의 여격표시(a dative marker originating from locatives), '스게' 와 '쎬' ('s ge' and 'sge'), '스귀' 와 '쎬' ('s gui' and 'sgui'), 행위자와 피행위자의 상하관계(the upper-lower relation between an agent and theme)